

오승환 "MVP 후보 사퇴" 팀 동료 최형우 밀어주기 떨떠름한 윤석민



"프로야구도 정치판 닮아가나" 비난 여론 ... KBO "후보 자격 계속 유지"

프로야구 스토브리그가 엉뚱한 MVP 논란으로 뜨겁다. 7일 2011 시즌 최고의 활약을 선보인 선수들을 가리는 MVP 시상식이 있다. 올 시즌에는 '4관왕' KIA 윤석민과 삼성 투-타의 핵심 오승환·최형우 그리고 롯데의 4번타자 이대호가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가장 좋은 성적으로 그라운드를 빛낸 선수에게 돌아가는 영예인만큼 시즌 기록으로 따지면 단연 MVP는 윤석민이다. 하지만 한국시리즈 우승 프리미엄을 얻은 오승환이 부각된다. 3일 오승환이 팀 동료 최형우의 지지 발언을 하면서 후보 사퇴론이 불거지는 등 MVP 싸움이 가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후보 차차 소동'이 벌어졌지만 오승환은 MVP 후보자격을 유

지한다. 윤석민은 올 시즌 2.45의 방어율로 17승을 기록해 방어율·다승 1위에 올랐다. 팀 승리를 위해 감쪽 마무리로 나서 1세이브도 기록했다. 7월에는 5경기에 등판해 0.73의 방어율로 5승을 쓸어들었다. 올 시즌 3차례 완봉승 중 2승은 7월에 기록했다. 넥센을 상대로 무사사구 완봉승, 삼성을 상대로 1피안타 완봉승을 장식하며 전반기 KIA 1위의 공신이 됐다. 탈삼진(178개)과 승률(0.773)부문도 독식하면서 전설의 투수 선동열에 이어 20년만의 4관왕이라는 프로야구 새 역사를 썼다. 이외에도 18차례 퀄리티스타트로 피안타율·피홈루율·선발 등판 최다 이닝

투구 1위도 차지했다. 경기당 탈삼진과 스트라이크와 볼 비율도 역시 1위다. 윤석민은 김선빈·이범호·김상현·최희섭의 부상 쓰나미속에서도 묵묵히 마운드를 지키며 팀의 포스트시즌의 디딤돌 역할을 했다. 타선의 침묵 속에 '우승'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포스트시즌 첫 경기에서 괴물피칭으로 완투승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지난 시즌 자해 소동으로 팬과 팀에 큰 실망을 안겨줬던 윤석민은 절치부심 2011년을 준비했고 그 결과는 성적으로 입증됐다. 지난해 11월 광주우아시안게임 대만과의 결승전에서 류현진에 이어 5회부터 마운드를 책임지며 한국에 귀중한 금메달

을 안겨준 윤석민은 그 기세를 몰아 프로야구 마운드까지 점령했다. 윤석민은 "올 시즌 많은 걸 이뤘고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우승의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개인은 물론 팀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좋은 성적이 나온 만큼 당연히 MVP에 대한 욕심을 부리겠다"며 "좋은 결과를 안고 동료들이 맘 놓고 있는 일 본으로 향하고 싶다"고 밝혔다. 팀이 최하위로 추락한 2007년 마당쇠 역할을 하면서 3.78의 방어율에도 불구하고 최다패(18패)를 기록, '비운의 에이스'가 됐다. 윤석민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대표팀 탈락 논란, 2010년 광주우아시안게임 엔트리 누락 사건 등으로 마음고생을 했다. 뜻하지 않은 MVP 논란으로 최고의 한 해로 남아 할 2011년 마저 윤석민에게는 씁쓸한 해가 되고 말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이만수 SK 감독 취임

"한·미 '비빔밥 야구'로 재미있게"

프로야구 SK 와이번스 이만수(53) 신임 감독이 미국에서 지도자 생활을 하며 배운 선진 야구를 한국 문화에 잘 접목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감독은 3일 오후 SK T타워 지하 중식당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미국식 자율야구와 한국 야구의 조직력을 잘 접목해 색다른 야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감독은 또 "가볍다는 말은 개의치 않는다. 선수를 보호하는 것이 감독의 역할"이라며 올해 포스트시즌에서처럼 화끈한 행동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이 감독은 앞선 1일 SK와 계약금 2억5000만원과 연봉 2억5000만원 등 총액 10억원에 3년간 계약을 하면서 '대행' 프리표를 떼고 네 번째 사령탑으로 선임됐다. /연합뉴스



최경주 골프도 식후에

3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월드골프챔피언십 HSBC 챔피언스에 출전한 최경주가 18번 홀 티오프를 기다리면서 바나나를 먹고 있다. /연합뉴스

소치올림픽 출전 김연아 "글쎄요"

기자회견 행로 밝히지 않아 '피겨여왕' 김연아(21·고려대)의 거취가 오리무중이다. 김연아는 3일(이하 한국시간) 스위스 로잔 올림픽박물관에서 열린 제1회 동계유스 올림픽 홍보 기자회견에서 차기 올림픽 출전 여부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행로를 밝히지 않았다. 김연아는 "최근 올 시즌을 쉬기로 했다. 물론 대회에 출전하지는 않지만 훈련은 매우 열심히 하고 있다"며 "다음 시즌에 뭘 할지는 내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알다시피 피겨스케이팅 선수구 울림픽에 2회 연속 출전하는 건 매우 드문 일이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연아의 이러한 태도는 올해 세계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 우승자인 안도 미키(24·일본)와 대비된다. 안도는 프로의 꿈을 미뤄두고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 출전에 충실히 대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김연아는 제1회 동계유스올림픽 홍보대사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영광스럽고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지금까지 나는 올림픽 꿈을 이루려고 열심히 노력했다. 이번 홍보대사 활동이 올림픽 꿈나무들이 그들의 올림픽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30년 타이거즈 30년

<54> KIA 2007 시즌 끝까지

연일 패배에 흥피 폐쇄...팬·구단 법정 다툼 정재공 단장·서정환 감독 해임으로 막 내려

2007시즌 KIA 타이거즈의 캐치프레이즈는 "All for one, V10 Tigers" 이었다. 모두가 하나 되어 V10을 이루자는 것이었는데, '모두가 윈치' 않은 2시즌 만에 또 다시 2번째 꼴찌라는 참담한 결과로 2007시즌을 마감했다. 결과적으로 멋진 캐치프레이즈를 준비하는데 온 정성을 다 쏟아부었는데 실제 경기력향상에 대한 분석과 보완은 미흡하기 짝이 없었다. KIA 프런트와 벤치는 주전 선수들의 줄부상으로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을 정당화하려하겠지만 그 대비까지를 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프로구단 아닐까. 이는 주전 선수 몇 명이 부상으로 빠져도 티가 나지 않을 정도로 두터운 선수층을 구축해두고 대응해야 하는 기본적인 소임을 망각한 처사다. KIA는 4월에 4연패, 5월에 6연패, 6월에 4연패와 7연패, 6-7월에 걸쳐 6연패, 7

월에 4연패, 8월에 7연패, 9월에 3연패 등 화려한 연패시리즈로 팬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주었다. 연패를 거듭하며 비상사태에 처한 KIA는 5월10일 한국인 메이저리그 타자 1호인 광주일고 출신 최희섭과 입단계약을 체결했다. 동시에 에서트과 서튼의 대체 용병을 모두 투수인 로드리게스와 스코비로 교체하며 분위기 반전을 꾀했다. 그러나 만원관중이 운집할 정도로 대단한 반향을 일으켰던 '빅쇼이' 최희섭은 데뷔전인 잠실 두산전서 주루플레이중 정원석과 부딪혀 왼쪽 갈비뼈부상을 입고 데뷔 3경기 만에 중도 하차하고 말았다. 또한 교체용병 로드리게스는 "선발로 뛰어야 할라"는 구단의 요청을 거부하고 불펜 등판을 고집하는 항명파동까지 벌였다. 프런트와 감독의 리더십의 부재와 동력의 상실로 향로를 벗어난 KIA호는 승

수를 챙기려는 타구단의 사냥감으로 전락했고, 선수들은 패배주의에 젖어 패하고도 분한 줄도 모르는 백지 상태가 되어 버렸다. 팬들의 분노는 폭발했고 단장과 감독교체를 요구하며 온-오프라인에서 항의가 빙발치자 프런트는 홈페이지 폐쇄의 강경대처로 맞섰고 양측 갈등은 법정문제까지 비화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재공 단장과 서정환 감독의 해임으로 막 내렸다. KIA는 한기주가 25세이브를 기록하며 마무리로서 역할을 해준 반면, 차세대 에이스 윤석민은 마당쇠 역할을 했으나 타선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18패로 시즌최다패 투수의 명에 써야만 했다. KIA 이현근(0.338)은 삼성 양준혁(0.337)과 치열한 타율 경쟁 끝에 1리 차이로 순위타자와 최다안타(153안타) 2관왕에 오르는 영예를 누렸다. 그러나 '스나이퍼' 장성호(0.281)는 전인미답의 10년 연속 3할 타율에 도전했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KIA는 단 한 명의 10승대 투수를 배출하지 못하는 미기지 않은 진기록을 세우며 최하위로 어둠의 긴 터널 같았던 2007 시즌을 마감했다.



김재요 <조선이공대 교수·한국국가기록연구회장>

Llumar 루마썬팅 | 3M썬팅 | 모비스썬팅

앞유리 썬팅을 하면 열차단·자외선 차단 끝

- 자동차 앞유리 썬팅
- 자외선 차단 (기미, 주근깨, 검버섯, 예방효과)
- 뜨거운 태양 (열차단)
- 뛰어난 시야확보 (안전성)

천연가죽시트

세련된 정교함이 돋보이는 가죽시트

최저가

▶승용 5인기준 38만원 → 28만원 부터 ▶RV 5인기준 40만원 → 30만원 부터

타이어 | 휠 | 경정비

한국, 금호, 넥센, 미쉐린, 수입

타이어 4짝 교체시 스노우체인 12만원 상당 무료증정(공짜)

- 알라미엔트 3-5만원 무상점검
- 평생 펌프 무상점검
- 타이어알, 뒤 순환교체 평생 무료점검
- 브러쉬용역서액 무료증정

공짜

타이어 상담전화: 062-528-2258

광택 | 유리막코팅 | 맥과이어스 | 3M

Meguiar's

오리지널 맥과이어스 광택제 사용 "전국 최저가"

- ▶소형 25만원 → 13만원
- ▶중형 30만원 → 18만원
- ▶대형 35만원 → 23만원
- ▶RV 35만원 → 23만원
- ▶수입차 40만원 → 28만원

한국카렌드 자동차용품 백화점

TEL. 062-521-2258 H.P. 010-9633-3535

한국카렌드가 하는 일

- 루마썬팅, 3M코팅, 모비스썬팅
- 맥과이어스광택, 코팅, 실내클리닝, 허부언더코팅
- 만도네비게이션, 아이나비, 모비스네이게이션

- 카오디오,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DMB사크안테나
- 자동차경비일체, 밧터리, 오일교환, 라이닝 기타
-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수입타이어
- 천연가죽시트, 인조가죽시트, 수입차 가죽시트제조

전국 최저가 판매

- 국내최대 500평매장
- 주차장 700평 주차객정 끝

임동오거리 | 임산병력 | 하남 | 신안사거리 | 한국카렌드 | 임동 자동차거리 중간사거리(20분길)